

## “부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끄는 힘”



2026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5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2026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



한기총 2026 부활절 감사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한기총



2026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새벽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한교연

### 한국교회, 2026년 부활절 맞아 연합예배 드리며 ‘부활 신앙’ 확인



이재명 대통령

한국교회가 2026년 부활절을 맞아 5일 연합예배를 드리며 사랑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했다. ◆“새 생명과 다시 일어서 힘 주시는 진리”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경석 목사, 한교총) 회원교단들이 중심이 된 ‘2026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생명의 부활, 한반도의 평화’라는 주제로 국내 73개 교단이 참여한 가운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진행됐다. 이 예배에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장동혁 여야 대표들도 참석했다.

전례 행사는 1부 예배와 2부 축하-결단으로 구성됐다. 예장 통합 부총회장 권영 목사(한교총 대표회장)가 ‘부활 생명(요한복음 20:19-23)’이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세 가지 차원에서 조명했다. 부활은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가져오는 사건이며,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사건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는 사건이라는 것이다. 그는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분열에서 화해와 하나 됨으로 인도한다”며 한국교회의 연합과 사회적 화해를 촉구했다.

예배에선 광림교회와 여의도순복음교회 연합찬양대가 ‘할렐루야’ 찬양을 드렸고, 신길찬양단이 봉헌 찬양을 맡았다. ‘부활-평화-사랑-섬김’의 네 가지 주제로 진행된 특별기도 순서에선 최형영 목사(나성 총회감독), 정기원 목사(그교회 교역자 총회장), 안상운 목사(예장 호헌 총회장), 신용현 목사(예장 개혁개신 총회

기 위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중요하다”며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께서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마다 가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길을 환하게 밝혀주셨다. 앞으로도 기도도 함께해주시며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앞장서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대회장인 이영훈 목사(기하성 대표회장)는 대회사에서 “한국교회가 국민 대통합에 앞장서며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이 시대 속에서 희망의 빛이 되고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또 준비위원장 엄진용 목사(기하성 부총회장)와 김일엽 목사(기침 총무)가 발언했으며, 소강석 목사는 환영사를 했다. “부활절 연합예배는 우리 사회에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왔다. 늘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해주시는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이러한 때 부활은 희망의 빛”이라고 했다. 그는 “부활은 다름과 갈등으로 인한 아픔을 치유하며 하나로 품는 통합의 빛”이라며 “한기총 부활절 감사예배가 이념과 지역, 정치적 갈등을 넘는 계기가 되길 소원한다. 나아가 세계가 전쟁과 다툼이 아닌, 평화와 대화, 더불어 사는 곳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전했다.

예배 대표기도는 강기원 목사(예장 목양 총회장)가 드렸으며, 박홍자 장로(명예회장)의 성경봉독 후 이다윗 목사(공동회장, 총만한사람나눔 대표)가 ‘부활 신앙(로마서 8:9-17)’이라는 설교를 전했다.

임 목사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부활의 능력이신 성령의 권능을 함입어 죽음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짓밟으며 살자”며 “불안, 근심, 공포, 미움, 증오, 무기력, 놀림, 우울 등 어둠의 세력을 깨부수며 살자. 매 순간 부활의 권능을 덧입자. 이를 통해 늘 자유, 평강, 기쁨, 행복이 충만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자”고 전했다.

이러한 때 부활은 희망의 빛”이라고 했다. 그는 “부활은 다름과 갈등으로 인한 아픔을 치유하며 하나로 품는 통합의 빛”이라며 “한기총 부활절 감사예배가 이념과 지역, 정치적 갈등을 넘는 계기가 되길 소원한다. 나아가 세계가 전쟁과 다툼이 아닌, 평화와 대화, 더불어 사는 곳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김성희 의원(고양시)이 축사하고, 엄진용 목사(한기총 중경대표회장)는 격려사를 했다.

합심기도 순서에선 대한민국과 대통령, 세계평화와 전쟁 종식, 생명 존중, 사회 통합과 화합, 고통받는 이웃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각각 윤광모 목사(예장 예음 총회장), 김상진 목사(예장 합동보수A 총

회장), 임호성 목사(예장 합동총연합 총회장), 조윤희 목사(예장 개혁정통 총회장), 이흥선 목사(기독교개혁연대 대표)가 기도를 인도했다. 예배는 김용도 목사(명예회장)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자”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천환 목사)은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선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전국기독교총연합회(이사장 엄신형 목사)와 함께 이날 오전 6시 군포제일교회(담임 권태진 목사)에서 ‘2026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새벽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는 군포시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 성도 등 5백여 명이 모여 주님의 부활을 한 마음으로 축하했다.

김학필 목사(전기총 총괄이사)의 진행으로 시작된 1부 부활절 기념식은 이선 목사(한장총 대표회장)의 대회사에 이어 천환 목사(한교연 대표회장)가 부활절 공동메시지를, 엄신형 목사(전기총 이사장)가 축사를 각각 전했다.

이선 목사는 대회사에서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로 들어온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로 인해 한국교회가 태동했고, 두 분 선교사로 인해 이 땅에서 부활절연합예배가 시작됐다”며 “이런 역사적으로 뜻깊은 날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참석한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때 부활은 희망의 빛”이라고 했다. 그는 “부활은 다름과 갈등으로 인한 아픔을 치유하며 하나로 품는 통합의 빛”이라며 “한기총 부활절 감사예배가 이념과 지역, 정치적 갈등을 넘는 계기가 되길 소원한다. 나아가 세계가 전쟁과 다툼이 아닌, 평화와 대화, 더불어 사는 곳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후 천환 목사는 부활절 공동메시지에서 “한국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 끝날까지 증거하기 위해 부름받은 선교공동체다. 그런 한국교회가 지금 분열과 분과주의라는 벽에 가로막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조차 각각 따로 드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을 저

해하는 우리 안의 쓴 뿌리를 깨내고 초대교회의 순수한 복음 열정으로 돌아가 한자리에 한목소리로 주님의 부활을 소리높여 찬양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한다”라고 전했다.

축사를 전한 엄신형 목사는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역사적인 날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괴롭혔던 죄가 다 해결됐고, 사망과 저주가 물러갔기 때문”이라며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2부 예배에선 최귀수 목사(한교연 사무총장)의 인도로 참석자들이 찬송 160장을 부른 후 정영교 목사(예장 통합 부총회장)가 대표로 기도했다. 이어 ‘복음 평화 통일과 민족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정광식 목사(한교연 서기), 한국교회의 섬김과 하나됨을 위한 기도를 가성현 목사(한장총 공동회장), ‘땅끝까지 부활의 복음 증거를 위한 기도’를 임영선 목사(한장총 부흥사 사무총장)가 각각 한 후 군포제일교회 연합찬양대의 부활찬양에 이어 권태진 목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탁, 성령을 받으라(요20:19-23)’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권 목사는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한국교회에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한국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될 때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고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복음 통일을 이룰 것”이라며 “한국교회가 연합, 통합, 화합으로 하나되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는다”라고 했다.

이날 부활절 연합예배는 송암어린이합창단의 특별찬양과 장시환 목사(한교연 상임회장)의 봉헌기도 후 박용규 장로(성민원)의 광고, 김요셉 목사(한교연 초대 대표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김진영 기자

## 사통팔달 강원시대가 시작됩니다.

예타 통과(50분 예상)

1시간 25분

평택 ↔ 제천 ↔ 영월 ↔ 삼척

126.9km      29.9km      70.3km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서해에서 동해까지 2시간대로 가까워집니다.

**강원특별자치도**  
GANGWON STATE